

제6회 일가사상세미나 _____

- ◆ 일가사상 구현과 유기농업
- ◆ 일가의 농업경제사상 일고

- ◆ 일시 : 2005년 11월 5일(토) 오전 9:30
- ◆ 장소 : 밀알학교 일가홀
- ◆ 주최 : 일가기념사업재단 부설 일가사상연구소

◆ 일 정 표 ◆

사회 : 오명도(서울시립대 공과대학장)

개 회	사회자	
개회인사	림영철(일가사상연구소장)	
환 영 사	김상원(일가기념사업재단 이사장)	
연구발표 1	-----	10:00 - 10:40
	주제 : 일가사상 구현과 유기농업	
	발표자 : 손상목(단국대학교 유기농업연구소장)	
토 론	-----	10:40 - 10:50
	최병철(한국생명농업협회장)	
휴 식	-----	10:50 - 11:00
연구발표 2	-----	11:00 - 11:40
	주제 : 일가의 농업경제사상 일고	
	발표자 : 정기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센터장)	
토 론	-----	11:40 - 11:50
	정진석(흙살리기참여연대 대표)	
종합 토론	-----	11:50 - 12:20
	좌장 : 사회자	
광 고	-----	12:20 - 12:25
	림영철(일가사상연구소장)	
폐 회		
오 찬	-----	12:25 - 13:30

◆ 목 차 ◆

연구발표1(일가사상 구현과 유기농업)

발 표 : 손상목(단국대학교 유기농업연구소장) -----

토 론 : 최병철(한국생명농업협회장) -----

연구발표2(일가의 농업경제사상 일고)

발 표 : 정기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센터장) -----

토 론 : 정진석(흙살리기참여연대 대표) -----

◆ 연구발표 1

일가사상 구현과 유기농업

손 상 목¹⁾(단국대 유기농업연구소장)

I. 일가선생의 농촌개혁 농민훈련

일가 선생의 삶과 사상은 우리나라 농촌개발과 새마을운동이 성공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일가 선생의 사상과 가나안농군학교의 교육은 앞으로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신과 방법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이한기, 2001).

일가 선생은 일찍이 1931년 봉안 이상촌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이상촌 건설을 시도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신앙공동체를 이상향으로 설정하였다. 「가나안」 농민훈련은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된 교육이었으며, 그 범위도 처음에는 농업과 농촌을 대상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확대되어 공업과 도시지역으로, 나아가서는 직종과 지역을 망라한 전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운동과 교육으로 발전하였다. 「가나안」에서는 국가와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돈, 자원, 지식, 기술보다는 인간자원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장 지도자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가나안농군학교와 복민운동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우리나라의 농촌과 농민, 나아가 전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농촌개발·국가재건 운동이요, 생활개혁·정신개혁 운동이었다.

오늘날 우리 농업과 농촌은 WTO체제하의 농산물 시장개방화와 국제화의 도도한 물결아래 단군 이래 최대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친환경 유기농업은 한국농업 농촌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가 친환경 유기농업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는 한국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적극 펴나가고 있다.

일가선생은 일생을 경기도 양주군 와부에서의 봉안 이상촌 사업(1935년), 삼각산 기슭 세검정 골짜기의 농장(1946년), 용인의 「에덴향」 건설(1952년), 경기도 광주에서의 농촌 계몽사업(1954년), 강원도 원주군 신림에서의 제2가나안 농군학교(1968년) 등을 통해 그

1)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29, 단국대 유기농업연구소, Tel: 041-550-3633, Fax: 041-568-3633, 핸드폰: 016-428-2939, 홈페이지: <http://www.rioa.or.kr>

의 꿈인 복민사회 건설에 헌신하였다(김용기, 1965; 김용기 1968; 김용기 1980; 오덕교, 2003). 가난하고 어두운 고난의 땅을 일구어 낙원으로 만들고 그 가능성과 방법을 뜻있는 모든 사람에게 실천을 통하여 가르쳐주었다. 그는 가난한 이웃 농민들에게 바람직한 생활양식과 효과적인 농사방법을 보급하였다(황중건, 2001).

본고는 일가선생이 그토록 원하였던 이상촌 건설이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생태계를 지키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유기농업이라고 믿고(손상목, 2003; 이태근, 2005), 유기농업을 통해 일가사상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기에 처한 한국 농촌과 농업의 유일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유기농업의 교육 훈련사업을 통해 오늘날 이땅에 일가사상을 뜻 깊게 구현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II. 국내외적 변화와 한국농업의 진로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농업” 개념이 도입되면서 환경보전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측면의 농촌, 농업인 문제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강조되어 왔다. 또한 1992년 6월 리우선언 및 그 세부 추진계획인 의제21의 채택으로 모든 참여국이 농업정책을 환경측면에서 재조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OECD에서는 각 국의 농업환경정책을 평가해 농업환경정책과 생산 및 무역과의 연계논의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유기농업 육성목표를 크게 확대하는 추세이며, 2005년까지 전체 농산물의 5~10%, 2010년까지 10~20%를 목표로 삼고 있다. 2010년까지 덴마크는 20%, 독일은 20%, 네덜란드는 10%를 각각 목표로 하고 있다.

표1. 주요 국가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구 분	호 주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일본	중국 ('97)	쿠바 ('98)
재배면적 (천ha)	10,000	2,960	1,168	950	725	697	665	509	479	297	187	5	1,130	1,300
총재배면적 대비비율(%)	2.2	1.7	8.0	0.2	4.2	4.1	2.3	1.7	1.3	11.6	6.1	0.1	0.8	19.7

*출처: IFOAM(2004.2),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유럽은 2006년까지 전체 소비자들의 58%가 유기농식품을 소비할 전망이며, 지출규모가 현재보다 두배로 신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유기농식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고정적 소비층'이 계속 증가하고,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생산량을 계속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어 많은 유기농산물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우리 농업은 그간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화학비료, 농약사용에 많이 의존하여 왔다. 2002년 현재 화학비료 사용량은 342kg/ha이며, 농약은 12.8kg/ha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이후 친환경농업을 본격 추진하여 화학비료 투입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으나 농약사용량은 큰 변화가 없다. 특히 수도용 농약 사용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03년에 '99년 대비 약 30% 감소) 원예용 농약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선호 및 친환경직불제 등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친환경농산물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말 현재 친환경 인증농산물은 460천톤으로 전체 농산물의 약2.5% 수준에 이르며, 친환경 인증농가수는 2만9천호에 이르며, 재배면적은 3만ha에 달하고 있다.

표2.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량 변화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농가수(천호)	1	2	5	12	23	29
면 적(천ha)	1	2	5	11	22	30
생산량(천톤)	27	35	87	200	365	460

인증단계별로 보면 저농약재배가 약 56% 수준으로 가장 많고, 무농약이 약 36%, 유기재배(전환기유기 포함)가 약 8% 수준이다.

최근 안전식품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초기 소비자단체 등에 의한 직거래 중심에서 전문 유통업체 및 대형할인점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2004년말 현재 친환경농산물 취급 유통업소는 900개소를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친환경농산물 만을 취급하는 전문매장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표3. 친환경농산물 전문 유통업체 현황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31개소	36개소	48개소	114개소	265개소
초 록 마 을	-	-	5	57	178
한 살 림	23	26	30	37	42
(주)녹색가게	-	-	-	2	120
유기농하우스	-	-	-	-	14
한마음공동체	8	10	13	18	32

농림부는 2010년까지 친환경인증농산물을 10%로 확대할 계획이며, 2013년까지 화학비료·농약 40%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할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III. 일가사상 구현과 유기농업

1. 유기농업의 핵심원리

한국유기농업은 일본유기농업과 같이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유기농업과 견주어 볼 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앞으로는 한국유기농업도 국제기술을 받아들여 보다 한 차원 높은 유기농업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제유기농업기술을 수용한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2001년)에서 2005년 1월1일부터 FAO/WHO Codex 유기식품규격을 거의 대부분 실천하여야 한다고 수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같은 조치이다.

한편 WTO체제는 SPS협정(위생 식물검역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과 TBT협정(무역의 기술적 장애에 관한 협정)을 통해 식품의 안전기준과 동식물의 검역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감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WTO체제하에서 회원국가간 무역과 통상에서 Codex 유기식품규격이 국제식품기준으로 통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각국이 관련규격을 만들 경우 guideline으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 무역 분쟁시 참고규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한국유기농업은 더 이상 국제유기농업규격 실천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과연 그렇다면 Codex유기식품규격을 포함한 국제유기식품생산규격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 한국유기농업은 앞으로 어떻게 이를 실천해 나가야하겠는가 그리고 과연 유기식품은 무엇인가 하는 것 들이 우리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1) Codex 유기식품규격의 목표 및 핵심내용

(1) Codex란 무엇인가?

Codex 유기식품규격은 Codex alimentarius 위원회로 지칭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인 FAO/WHO 합동식품규격사업단(Joint FAO/WHO Standards Programme, 1962년 설립)의 사업으로 제정된 유기농산물과 축산물의 생산, 가공, 운송 및 인증 등에 관한 국제식품규격이다. 라틴어로 Codex는 법령(Code), Alimentarius는 식품(food)을 의미하므로 Codex alimentarius는 식품법(Food code)을 뜻한다. Codex는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관련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함으로서 식품으로 인한 인간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제간 식품교역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2) 유기농업의 목표와 핵심 내용

유기식품규격의 여러 내용중 경종부문과 축산부문은 표4에 개괄적으로 나타나 있다. 유기경종에서는 철저한 작부체계의 계획하에서 윤작, 녹비작물 재배, 윤작체계에서의 두 과작물 재배가 관행농업과 다른 유기경종의 핵심내용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저항성품종의 재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전자변형 식물의 재배, 성장조절제, 농약, 제초제 및 화학비료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토양/미생물/작물/축산계의 건전성 유지 및 향상을 목표로 총체적 생산관리체계(Holistic production management system)로 유기농업이 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손상목, 2000). 또한 공장식 축분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한편 유기축산에서는 유기농 사료에 의한 사양, 가축의 복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약품, 사료첨가제, 성장호르몬 및 유전자 변형기법에 의한 번식기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토착유기농업기술은 그동안 과학기술계와의 교류가 단절된 시대적 상황에서 다만 초창기 유기농업 운동가들의 경험에 의해 모자이크식으로 그 기술이 축적되어 왔을 뿐이다. 그 결과 한국유기농업은 아직도 제도권 농학자들의 적극적 연구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 미국의 유기농업은 유기농업을 학계에서 그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 1980년대 후반부터 20여년간 체계적으로 연구해 왔고, 많은 연구자들의 면밀한 기술 검증, 개발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를 거쳐 그 연구결과물들이 집대성되어 유기농업 현장에 전달되어 실천되어 왔다.

또한 이들 유기농법 기술과 원칙들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규정된 것이 국제 유기농업 규약 또는 기본규약들이며, 이 내용들은 이제 Codex규격으로 채택되어 그 효력이 발효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현재 한국유기농업이 실천하고 있는 유기농업 기술과 비교할 때 너무나 크게 다르다.

표4. FAO/WHO Codex유기식품규격에 나타난 유기농업의 핵심 기술내용 (손, 1995)

유 기 경 종	유 기 축 산
I. 윤작	I. 유기농 사료의 급여 (85% 반추가축, 80% 비반추가축)
II. 작부체계내 두과작물 재배	II. 가축의 복리
III. 녹비작물의 재배	
IV. 저항성 품종	
V. 최적량의 유기질비료 사용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금지 공장식 축산분뇨 금지	수의약품 금지 사료첨가제 금지
폐쇄순환농법 (축산과 윤작에 의한 토양비옥도 향상) 총체적 생산체계 (토양-미생물-작물-축산계의 건전성 유지 및 향상)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 금지 성장조절제(성장호르몬) 금지	

2) 유기경종 부문

(1)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 재배의 윤작체계

토양비옥도 유지를 위해 유기농업에서는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 재배의 윤작체계, ㉡규정된 가축사양두수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나 퇴비 등 유기물질의 토양 혼입을 기본으로 하고 다만, 퇴비효과나 토양개량률 위해 사용하는 각종자재²⁾는 ㉠㉡의 조처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양분공급 위해 사용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토착유기농업³⁾에서는 퇴비를 사용하고 효소제, 미생물제, 광물질을 사용하여 토양비옥도를 유지시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윤작이 토양 비옥도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기농산물 인증 기준에 윤작을 권장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윤작은 ①토양유기물의 공급과 유지, ②질소천연공급량의 증대, ③토양물리성의 개선, ④토양의 양분 흡수권의 확대, ⑤토양양분의 균형유지, ⑥병해충발생의 억제, ⑦잡초발생의 억제, ⑧토지이용률의 향상 등을 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특히 병해충과 잡초 관리의 수단으로 유기농업의 핵심기술로 규정하고 있다(손상목, 2000). 특히 두과작물,

2) 사용가능 유기질비료는유기농법 실시 농가에서 발생하는 식물잔재와 축산분뇨 및 이를 재료로 한여 제조한 퇴비 또는 건조분. 제한적으로 유기농산물 품질인증기관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사용 가능하나 환경부하 및 농산물의 품질이나 안전성에 용인할 수 없는 결과가 없어야 되는 유기질비료는 비유기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이 축분으로 만든 퇴비와 건조분, 구아노, 짚, 도축장폐기물, 음식물쓰레기, 톱밥, 인분.

3) 농림부의 품질기준, 농림부령 제 1269호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의 재배의 윤작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두과작물 재배를 통한 타감작용에 의한 잡초관리와 천연질소공급량 확대,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양분용탈 방지와 유기질비료 공급효과, 심근성작물 재배를 통한 심토 영양분의 용탈방지 및 표토로의 환원 등을 목표로 하며 이것들은 유기농법의 환경보전 기능 수행과 친환경토양관리 및 병충해·잡초관리에 뛰어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표5. 토양비옥도 유지수단에 관한 현행 한국 유기농업과 유럽 유기농업의 차이점

구 분	유기농업 기본규약 / 규격 또는 핵심기술
FAO/WHO의 Codex 유기농업 규격	-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 작물의 재배의 윤작체계 - ㉡규정된 가축사양두수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나 퇴비 등 유기물질의 토양혼입 ⇒퇴비효과나 토양개량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자재는 ㉠㉡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양분공급 위해 사용 하는 경우사용 可
한국유기농업	㉠퇴비사용, ㉡효소제, 미생물제, 광물질 등 사용

독일에서는 유기농가에서 우선 토양검정을 통해 질소, 인산, 칼륨 및 유기물 함량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영양분의 투입량과 탈취량에 따른 질소수지 대차대조표에서 최적량의 질소공급이 가능하도록 윤작을 실천하는 작부체계를 미리 계획한다.

예를 들어 6년 윤작의 경우, 첫해에는 화분과에 속하는 귀리가 20~30cm 자랐을 때 콩과작물인 레드클로버를 혼파해 귀리 수확 후에도 계속 자라도록 한다. 다음해에는 사료용 풀과 클로버를 같이 키우면서 1년에 4차례 베어낸 뒤 경운한다. 베어낸 풀은 사일리 지나 건조로 사용한다. 클로버를 2년 이상 재배하면 공중질소 고정공급으로 토양비옥도가 높아지고 유기물 함량도 많아진다. 또 지하에 뿌리의 잔재가 많아져 토양 개선효과도 얻을 수 있다. 클로버를 4년정도 예취하면서 키우면 지상부가 뺏뺏해져 다른 풀이 자라지 못해 잡초제어에도 효과적이다.

3~4년차 토양에는 감자와 겨울밀, 겨자 등 흡비력이 높은 작물을 재배하고 5년차에는 키가 왕성하게 자라는 콩과작물을 재배해 다시 질소를 토양에 충분히 공급케 한다. 그리고 마지막 6년차에는 봄밀과 같은 화분과를 재배해 축적된 양분을 소비토록 하는 작부체계를 실천해 나간다⁴⁾.

4) 이간은 유기농업 실천 세부내용은 각 지역의 토양과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유기농업 실천의 핵심기술은 유럽연합이 1992년 제정한 유기농업규약을 회원국 모두가 지키고 있기에 동일하다. 유럽 유기농업규정은 유기농업 실천농가가 해야할 것과 해서는 안될 것을 정한 최소규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회원국내 모든 유기농가는 이 규정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생산품이 유럽시장에서 유기식품으로 인증되어 유통될 수 없다. 각국의 정부는 유럽 유기농업규정을 근거로 자국의 유기농업규격을 제정하고 다시 각 유기농업단체는 유럽유기

(2) 사용 유기질비료 종류와 최적사용량

상기의 토양비옥도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제반조치에도 불구하고 윤작, 토양개량 및 작물의 식물영양적 요구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환경부하 및 농산물의 품질이나 안전성에 용인할 수 없는 결과가 없어야 되는 유기질비료로는 ①비유기축산농가의 축산분뇨, ②축분으로 만든 퇴비와 건조분, ③구아노, 짚, 도축장폐기물, 음식물쓰레기, 톱밥, 인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물질들을 표5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사용전에 반드시 인증기관의 별도 허가를 받은 후에야 사용이 가능하다.

유기경종에서는 유기농법 실시농가로부터 유래되는 유기물질로 제조된 퇴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즉, 유기경종에서 발생하는 식물의 잔재, 유기축산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와 유기축산의 분뇨로 제조한 퇴비, 건조분 등이 유기경종에서 사용 가능한 유기질비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기경종농가는 균형적 유기질비료 사용계획을 마련하고 토양과 수질에 질산염과 인산염의 부하를 주지 않는 적정량의 퇴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IFOAM 기본규약에서는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 토양분석을 통한 토양진단과 식물체 분석에 의한 최적시비처방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방목지, 초지 또는 자연(또는 반자연)상태 등 외부에서 사육되는 경우 토양오염 및 과도한 방목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도록 가축밀도가 낮아야 한다.

유기농업 실천 농가를 위해 경지면적당 거름단위를 이용한 가축사육두수를 정해 놓은 것은 축종별로 축분발생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축분 종류별로 무기성분 함량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적정 가축사육두수란 경지면적당 거름단위(DE, Duengungseinheit)에 근거하여 정해놓은 가축사육두수와 동일한 개념이며, 이는 유기질비료 사용에서 환경부하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다.

유럽 유기농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름단위별 가축사육두수와 최적 유기질비료 사용량과의 관계는, 암소 1.5마리에서 발생하는 우분의 질소, 인산, 칼리 등의 비료성분이 송아지 5마리, 육돈 6마리, 산란계 100수, 육계 200수, 오리 150수에서 발생하는 분뇨에 함유되어 있는 질소, 인산, 칼리 등의 비료성분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름단위로 이를 표기하고, 유기농업 실천 농가가 경작하는 농지의 규모에 따라 이들 경지에 환원할 수 있는 즉 다른 말로 하면 유기농가가 규모에 따라 사육할 수 있는 축종별 마릿수를 표기

농업규정과 자국의 유기농업규격을 기초로 하여 각 유기농업생산자단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더욱 세밀하고 엄격한 생산지침을 마련해 실천해 나가고 있다.

하기 위해 거름단위별 가축사육두수를 정해 놓은 것이다. 최적 유기질비료 시용량을 축종별 마릿수로 정해 유기농업 실천 농가가 환경 부하를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농지 이용 및 구조를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사육두수에 따라 적정사육두수를 입식하거나(표4 참조), ha당 분뇨 최대살포량⁵⁾ 만큼의 가축분뇨를 유기축산 농가로부터 구입하여 시용하는 것도 적절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간, 농가간 유기축산의 가축분뇨의 이용을 위한 공동체적 지역체계 구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새로 채택된 Codex기준이 아직도 공장식 축분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Green peace보고서, 독일과 덴마크정부의 「농업백서」에서 유기농법 실천 농가의 토양 질산염 용탈이 관행농법에 비해 현저히 적어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추천할 만한 농법이라는 사실은 이들 국가의 유기농법 농가가 경지면적당 거름단위에 따라 축종별 마릿수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기질비료를 질소원으로 투입할 경우 수질에 질산염, 아질산염 등이 과잉하여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잉사용은 배제토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IFOAM 기본규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경지면적당 축종별 가축사육두수를 분뇨단위에 근거하여 정해 놓은 것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이 같은 원리를 적시하는 대목이다.

유기농업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규모에 따라 축종별 분뇨발생량에 따른 가축 마릿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기질비료 시용량을 과거에 무제한적으로 많이 시용하면 시용할수록 좋다고 믿었던 적이 있었던 한국유기농업이었다. 그러나 최근 채소의 고질산염 함량 파동 이후 유기질비료의 10a당 추천시용량은 8t으로 낮추어 지고 다시 5t, 3t으로 그리고 현재는 2t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Codex유기식품규격에는 유기농법으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토양비옥도의 유지와 증진은 윤작, 녹비작물의 재배, 두과작물의 재배에 의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요구되는 식물영양분의 공급이 상기 조치와 같은 토양비옥도 유지 증진책으로도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유기질비료 시용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토양진단을 실시하여 그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최적 유기질비료 시용량을 결정함으로서 환경친화적 시비로 유기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수행을 도모하는 것은 이미 농업선진국 유기농업에서 널리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5) 환경오염과 토양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축산선진국의 폐기물처리법, 비료 및 축산분뇨 시용규정과 우리나라 농지이용 및 구조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음. 독일은 연간 액상분뇨의 N함량이 최대 240kg/ha, P₂O₅함량은 210kg/ha까지 분뇨살포량을 규제. 영국은 N함량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200kg/ha, 네델란드는 P₂O₅을 기준으로 초지에는 연간 최대 250kg/ha, 옥수수재배에는 350kg/ha, 기타 밭에는 125kg/ha를 최대 살포기준으로 규제. 덴마크는 가축분뇨의 N함량 기준으로 연간 최대 약 230kg/ha를 살포기준으로 규정.

유기경종농가가 외부로부터 유기축분을 이용해 만든 퇴비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 적적시용량은 토양진단 결과 나타난 무기태질소함량을 근거로 포장의 토양비옥도와 재배 희망작물의 흡비량을 고려하여 유기질비료 시용량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표6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유기농가 포장별로 그 토양의 물리적⁶⁾, 화학적⁷⁾, 미생물적⁸⁾ 특성과 재배 희망작물의 질소요구도를 고려하여 질소비료 목표치를 설정한후 유기농가 포장별 토양시료의 무기태질소함량에 대한 분석치를 빼준 값을 산출하여 유기질비료 시용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선 유기농법을 실시하는 농가포장의 토양을 토양비옥도에 따라 4~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척박/비옥도에 따라 토양진단에 의한 질소비료 목표치를 산정하고 유기질비료의 시용량을 가감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표6.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사용에 관한 유기식품규격의 내용

유기농업 기본규약 / 규격 또는 핵심기술	
- 상기의 토양비옥도 유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윤작, 토양개량, 식물의 식물영양적 요구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으나 환경부하 및 생산물의 품질이나 안전성에 용인할 수 없는 결과가 없어야	
⇒ 인증단체의 허가가 필요한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유기농가의 축산분뇨, 단 집약축산농가의 축산분뇨는 사용금지 · 축분으로 만든 퇴비와 건조분, 단 공장식 집약축산농가의 것은 사용금지 · 구아노, 짚, 도축장폐기물,음식물쓰레기,툽밥 등 목재쓰레기, 人糞 등 	

표7. Bioland 기본규약의 분뇨단위에 근거한 축종별 사육두수 (Bioland, 1998)

축 종	두수/DE	축 종	두수/DE
종모우	1.25	육돈	6
암소	1.5	경산돈	3
소 2살 이하	1.5	산란계	100
소 1-2살	2	산란계 증병아리	200
송아지 0-1살	5	육계	200
말(소와 동일)		오리	150
양 1살까지	30	거위	200
양 1살 이하	18	칠면조	100

* DE는 Duengungseinheit의 약자로서 축산분뇨의 거름단위를 가르친다. 즉 축분에 함유되어 있는 질소, 인산, 칼리의 량과 축분 발생량을 감안하여 몇 마리의 대가축과 중소가축의 축분으로부터의 거름 량이 동등한가를 나타내는데 쓰이는 비교단위이다.

표7. 연간 ha당 액상분뇨 최대살포량과 환경친화적 적정사육두수

- 6) 사질 및 점토함량, 입단 형성정도, 보수력, 근권토양의 깊이 등
- 7) 전기전도도(EC), 양이온 치환용량(CEC), pH, 무기영양분, 중금속 등
- 8) 효소활성도, 미생물 밀도 등

축종	성분함량 (kg/m ³)			년간 최대살포 분뇨량중의 N함량 (kg/ha · year)	ha당 분뇨최대살포량과 적정사육두수	
	N	P ₂ O ₅	K ₂ O		최대살포량* (t/ha/year)	적정사육두수**
한육우 및 젖소	4.6	2.0	6.0	180	40*	3.3두**
돼지	6.0	4.5	3.0	180	30	12.5두
닭	10.0	9.0	5.0	180	18	353수

* 가축분뇨중 N함량의 연간 ha당 최대살포량 (환경친화적 ha당 분뇨 최대살포량)

** 연간 ha당 최대 분뇨살포량을 가축두수당 년평균 배설량으로 환산한 ha당 적정사육두수

표8. 토양진단을 실시한 유기농법 실시 농가 포장의 토양비옥도 등급과 재배작물의 흡비력에 따른 최적 시비처방의 질소 목표치(손 등, 1999)

포장별 토양비옥도	포장별 재배작물별 토양진단 최적시비의 질소목표치		
	고수준 kg N/10a (Nmin 값 + 질소시비량)	중수준 kg N/10a (Nmin 값 + 질소시비량)	저수준 kg N/10a (Nmin 값 + 질소시비량)
	배추, 무, 상추	옥수수, 밀, 시금치, 파	대두, 완두
매우 높음	22	12	2
높음	26	16	6
적정	30	20	10
낮음	34	24	14
매우 낮음	38	28	16

(3) 저항성 품종 및 비유전자변형 식물

유기경종에서는 저항성품종의 재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행적 농약사용을 전제로 육성된 상업용 종자로는 병충해로부터 작물을 안전하게 수확기까지 성공적으로 재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상업용종자를 육성해온 종묘회사가 개발작목의 관행적 농약 살포를 간과해 병충해 저항성보다는 수량성, 선택, 크기, 모양, 향, 당도 등에 목표를 두고 새로운 품종개발에 치중해 왔기 때문이다.

농약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으로 무엇보다 병충해 저항성이 높은 종자 종묘의 보급이 유기농가를 위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독일 등 유기농업 선진국에는 병충해 저항성이 고도로 높은 유기농업용 종자가 상업용 종자와 별도로 종자시장에 공급⁹⁾되고 있다. 정부는 종묘회사가 유기농업용 종자를 개발 육성해 나가도록 정책적 지원을 펴나가

9) 유기농업에서는 농약을 절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병해충에 강한 유기농업용 저항성종자를 개발, 보급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유럽의 대형마트나 원예종자자재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다.

고, 유기농가가 그동안 필요한 유기농업용 종자는 해외로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유기농업 지원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저항성 품종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¹⁰⁾. Codex 규격은 GMO종자나 식물의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4) 공장식 축분의 사용금지

공장식 축산(Factory farming)이나 비유기축산농가에 의한 외부분뇨나 이를 재료로 제조한 퇴비나 액비의 투입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공장식 축산을 「유기농업에서 허용되지 않는 각종 수의의약품과 외부의 사료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산업적 관리 시스템」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퇴비 및 액비원료의 양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3) 유기축산 부문

(1) 유기농 사료의 급여

유기농법적으로 재배한 유기농 사료를 반추가축은 85% 그리고 비반추가축은 80%이상 먹고 자라야 「유기축산」이 행해지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그 축산물인 우유, 달걀, 고기는 비로소 「유기축산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유기경종에서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할 수 없듯이, 유기축산에서는 관행농 사료로 가축을 사양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편 2005년 이후에는 유기가축 사양에는 유기농 사료를 100% 급여하여야 한다.

유기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기농사료에 의해 사육되어야만 한다면 우리나라 축산이 유기농법 축산이라고 칭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축산업은 대부분의 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위농가의 경지규모가 영세하고, 국가의 농경지가 부족하여 유기축산을 위한 목초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초를 사료로 이용하는 방법이나 외부로부터의 유기농 사료(알팔파 등)의 구입사용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10) 유기농업에 적합한 병충해 저항성이 높은 품종을 1년간 유기농법으로 재배하여 채종한 종자를 보급하고 이를 유기농업에서 사용하고 있음. 유럽 각국의 원예종자자재센터 또는 유기농업 단체를 통해 구입할 수 있음

(2) 가축의 복리

유기농법적 축산의 기본은 토양과 가축간의 조화된 관계의 발전과 가축의 생리적 요구를 존중해주는 데 있다. 유기축산에서는 양질의 유기사료 제공, 적절한 사육공간, 적절한 사양관리체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가축관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사육 조건과 환경은 가축의 특별한 행동양식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충분한 공간 및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하고 가축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신선한 공기와 자연광의 공급, 양질의 신선한 물과 사료의 공급하는 “동물복리(Animal welfare)”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사는 사료 및 음용수 섭취가 용이한 구조, 공기 순환, 먼지, 온/습도 및 가스 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적절한 단열, 냉난방 및 환기시설,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가축의 생물적 행위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¹¹⁾.

날씨와 토지의 상태가 허용되거나, 가축의 생리적 욕구에 따라 초식가축은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비초식가축은 노천구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기상조건이 나쁠 때나, 가축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가 해를 받을 수 있거나, 식물·토양·수질을 보호해야만 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사양될 수 있어야 한다.

가축의 복리가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당국은 특정 환경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a) 특정(전통) 사양체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기(농장) 단위의 구조가 초지에 접근할 수 없는 곳, (b) 목초를 예취 급여하는 것이 방목하는 것보다 더 토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곳 등이다.

(3) 수의약품

적절한 사료에 의한 가축사양과 관리는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하며, 기생충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주된 수단으로 규정하고, 질병이 없는 가축에게 수의약품의 사용은 허용치 않으며, 질병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치료방법이나 처치방법이 없을 경우 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예방접종이나 치료제의 사용이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휴약기간은 법정기간의 2배가 되어야 하며, 2005년 이후에는 “유기”로 표시되는 가축 또는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의 사용은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11) 동물복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밀짚이 깔린 개별 잠자리와 넓은 통로 등의 쾌적한 환경을 축사내에서도 제공하고 있으며, 햇빛·운동 및 신선한 물·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야외로의 출입이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음

항생제, 항콕시디움제, 성장촉진제의 사용이 금지되고, 번식 및 성장호르몬의 사용이 금지하고 있으며, 휴약기간은 법적 요구기간의 2배를 준수토록 요구하고 있다. 단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 예방접종, 구충제, 치료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유기축산에 있어서의 수의약품의 사용금지 규정은 유기경종에서 농약과 제초제 사용금지 규정과 같이 축산물의 수의약품의 잔류물질 가능성을 배제코자 함이며, 성장호르몬의 사용금지 역시 성장조절제 사용금지와 마찬가지로 생물의 자연적 성장과 생장을 존중하는 유기농업의 기본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4) 유전공학적 번식기법 및 물질

가축번식에 있어 수정란 이식기법이나 번식호르몬 처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은 금지하고 있다. 한편 유전자변형 재료로부터 유래된 첨가제 또는 가공보조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유기축산에서는 유전자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어떠한 물질도 사료의 형태로 급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유기경종에서 유전자 변형 종자(식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2. 유기농업 교육의 산실

1) 유기농업 농민훈련

우리나라에는 농업인에게 유기농업 교육을 시키는 1일~2일 프로그램은 있지만, 현장 실습을 실시하면서 현장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은 아직까지 전혀 없다.

윤작 프로그램을 직접 실천하는 현장교육이 필요하나, 이 같은 작부체계는 극히 일부 농가에서만 실천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외면하고 있는 형편이다.

병충해 저항성이 고도로 높은 유기종자의 재배가 유기농업에서는 병충해를 예방하는 첫 번째 조치이다. 유럽에서는 유기종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유기농 인증이 불가하다. 병충해가 낮은 감수성인 품종을 사용하는 현행의 한국유기농업은 마땅히 바뀌어져야 한다. 유기종자를 사용하는 유기농업에 대한 농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상업용 품종을 파종하고 허용자재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을 깨우쳐 줄 수 있다고 본다.

종다양성은 유기농업에서의 병충해 제어의 두 번째 조치이다. 물론 병충해 제어를 위

해 천적 등의 생태계 섬을 조성해주는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근 일반농경지와외이격거리의 준수와 간작, 혼작 등을 실천해야 한다. 이 같은 영농방법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영농교육이 진행되어야 하겠으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현장교육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영농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유축순환농업이 유기농업의 기본이다. 유축순환농업을 통한 유기농업 실천의 일련의 과정을 한 농가단위에서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현장교육이 유기농업인에게 필요하다.

2) 유기농업기능대학

기능대학은 노동부의 직업훈련 자금을 지원받아 2년제 전문대학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유기식품 전문교육을 받은 수료자는 산업학사 학위를 받으며, 유기농 경종분야 / 축산분야 / 가공산업에 종사하거나, 인증기관의 인증조사관 또는 유기농 유통분야에서 일 할 수 있다. 또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 유기농업산업기사 자격시험¹²⁾에 응시할 수 있다.

유기농업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이 없어, 한국유기농업은 아직도 전문인력에 목말라 있는 형편이다. 독일이나 스위스에는 유기농업을 농업전문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 자연과학에 바탕을 둔 유기농업 확산의 기틀이 마련되어 졌고, 이를 통해 독일과 스위스의 유기농업이 세계 정상을 달리는 기초가 되었다.

유기농업기능대학 이수자중에서 희망자는 4년제 대학에 계속 진학 할 수도 있다.

유기농업기능대학에서는 실습을 위주로 현장감 있는 유기농 전문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¹³⁾. 오전에는 이론강의를 오후에는 농장실습 위주의 철저한 실기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졸업후에 유기농업에 종사하거나, 유기농 기술지도를 전담해 나갈 수 있는

12) 유기농업 분야의 기사자격시험은 2001년 10월에 한국유기농업교수연합회(회장, 손상목)에 의해 민간자격시험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2005년 9월에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변경되어 농과계대학에서 농학계열을 전공한 자가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유기농업 기술교육, 영농지도, 유기식품유통, 유기식품교육, 유기식품가공 등을 담당할 수 있다.

13) 그간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기술 전파가 초창기 한국유기농업 운동가와 일부 독농가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온 과정에서 유기독농가의 경험적 기술과 자연과학에 근거하지 않는 자가해석이 난무하여 많은 유기농가를 현혹케 하고, 뜻있는 연구계는 이러한 초기 한국유기농업의 일부 기술에 대해 우려한바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젊은 농학인의 수혈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자격시험의 도입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독일의 경우 유기농업 영농기술지도는 유기농법 영농기술지도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2년 과정의 “일가 유기농 기능대학”에는 유기농업학과, 유기축산학과, 유기식품가공학과, 유기농마케팅학과 등 유기농업 관련 학과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 할 것이다.

한편 독일에서는 Bonn대학교와 Kassel대학 등 9개 대학에 유기농업학과와 유기축산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베를린 Humboldt대학교, Goettingen대학교, Hannover대학교, Witten대학교에서는 유기농업 관련 강좌를 개설하거나, 유기농업을 연계전공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 또한 Wageningen대학과 덴마크의 왕립수의대학, 영국의 웨일즈대학 등도 유기농업학과를 설치하고 있다. 대학교육은 10~20년후의 미래농업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럽대학의 유기농업학과 설치 운영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Hartmut Vogtmann박사는 세계 최초의 유기농업 교수로 Kassel대학교(Witzenhausen 캠퍼스)에 1981년 취임하였으며, 1987년에는 두번째 유기농업 교수직이 Bonn대학교 유기농업연구소에 마련되었으며, Ulrich Koepke박사가 소장(학과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후에 유기농업 교수직이 7개 대학¹⁴⁾에 만들어 졌다. 유기농업 전공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은 Kassel대학교(Witzenhausen캠퍼스)와 Bonn대학교이며, 베를린 Humboldt University, University of Witzenhausen, Witten Private University에 있는 유기농업 교수직 운영은 슈바이스퍼스재단(Schweisfurth Stiftung)이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에는 덴마크유기농업대학이 설립되어 젊은 세대의 유기농 기능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독일에도 Neubrandenburg, Nuertingen, Osnabruck 등 여러 전문대학에 유기농업학과가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앞다투어 유기농업을 공부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국내 농과대학에서는 현재 단국대학교에서 유일하게 특성화 전공영역의 하나로 2002학년도부터“유기식품생산”이 연계전공으로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국내 대학에도 유기농업학과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럽의 경우 현재 1.0% 수준의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2010년까지 15%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¹⁵⁾ 유기식품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14) 현재 독일에는 ①University of Hohenheim, ②Fachhochschule Neubrandenburg, ③Fachhochschule Nürtingen, ④Fachhochschule Osnabruck, ⑤University of Bonn, ⑥Technical University of München, ⑦University of Kassel, ⑧Universität Gießen, ⑨University of Kiel 등 9개 대학에 수십명의 유기농업 교수가 취임하여 강의와 연구와 종사하고 있다.

15) 독일에는 700여개의 유기식품가공업체가 다양한 유기가공식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출하하고 있으며, 10개의 제3자 민간인증업체가 국내외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전세계에서 가장 앞선 유기농업 연구와 기술 수준을 인정받아 유기농업

추세에 있어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각광받는 농과계대학 전공분야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Willer, 1998; Kuecke, 2005). 유럽 농과대학의 경우에도 농과대학 학생 지원자수가 급락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업 전공은 경쟁률이 높아 가장 인기있는 농과계 학과로 자리잡고 있다.

표9. 단국대학교 유기식품생산 연계전공과정의 교육목표와 교과목

교육목표	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의 생산, 가공, 인증, 유통 및 교역의 전문가 양성	
교과목	전공기초(4)	재배학범론, 토양환경학, 실험통계학, 일반미생물학
	환경조경전공(6)	환경생태학, 환경농업, 식물환경학, 생태마을과 농촌개발, 환경영향평가, 생물자원보존학
	식량자원전공(5)	쌀생산이용학 및 실습, 전작물학 및 실습, 식물보호학, 잡초방제학, 원예작물학 및 실습
	동물자원전공(4)	초지학, 동물자원예방의학, 동물환경시설론, 동물사료공학
	식품가공전공(5)	식품공학1, 발효공학, 식품가공학1, 식품가공학2, 식품저장학
	환경경제전공(2)	유통경제학, 협동조합론
	미생물학전공(2)	식품미생물학, 토양미생물학, 환경미생물학
최소 이수과목 선택	유기식품생산 연계전공에 개설된 36학점 이수자는 “유기식품생산 전공”으로 표시 (예, 환경조경전공 학생이 유기식품생산 연계전공을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기초 4과목중 2과목을 이수하고, 환경조경전공에 밀줄로 표기된 2개 과목, 즉 환경농업, 생태마을과 농촌개발을 반드시 이수하고, 환경조경전공 또는 기타 전공의 교과목중에서 8개 과목을 골고루 선택적으로 이수하여 총 12개 과목(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표10. 유기식품생산 전공자의 졸업후 진출 가능분야

졸업후 진출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유기농산물 품질인증 담당공무원 - 시·도·군 지자체의 환경농업 담당공무원 - 농협의 친환경 유기농업 담당직원 - 국제유기식품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책임자 및 Inspector - 유기식품 가공산업계(음료, 유가공, 육가공, 기호식품, 냉동식품, 제과제빵) -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유기식품의 유통회사 - 유기식품의 수출입 교역회사의 직원 - 토양진단(INM)회사, 종합병충해관리(IPM), 유기농업생산자 단체의 임직원 - 친환경 바이오산업분야의 회사(생물농약, 천적회사, 바이오제제) - 유기농법 영농기술 전문강사 및 유기농법기술 Consulting회사 - 소비자단체, 환경보호단체, 사회단체 등 NGO의 직원 - 유기농업 및 유기식품 연구기관의 연구원
----------	---------------------------------------------------------------------------------------------------------------------------------------------------------------------------------------------------------------------------------------------------------------------------------------------------------------------------------------------------------------------------------------------------------------------------------------------------------------------------------------------------------------------------------------------------

최선도국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제도가 정착되어 유기식품가공분야를 창출 정립함으로써 유기농산물 대량수요를 창출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서울대, 연암축산대, 제주대 등에 각각 1개의 유기농업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대학원과정에는 단국대 대학원에서 “유기농학” 분야의 연구로 석/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3. 유기농업의 시범농장

유기농업은 유축순환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순환농업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유기농업의 근간인 윤작을 실천하는 시범농장을 만들어 국제유기농업의 제반 규정을 지켜나가는 유기농업을 보여주는 시범농장을 만들어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등에서 몰려오는 유기농산물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이제는 국제규격의 유기농업을 우리나라에서도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렇다고 내놓을 만한 모범적 유기농업의 실천농장이 거의 없다. 하루속히 국제규격의 유기농업을 이 땅에 들불처럼 번지게 하기 위해서, 국제유기농업을 실천해 나가는 수범적인 시범농장을 누군가는 만들어 보여주어야 한다.

독일 Bonn대학교의 유기농업연구소 실험농장은 약 60ha의 규모이다. 유축순환농업과 윤작 작부체계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시범농장으로는 최소한 10ha는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유기농업이 과학화된 새로운 영농기법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농장이 되기 위해서, “일가 유기농 시범농장”은 철저히 국제규격의 유기농업 핵심기술과 원리를 실천하는 농장으로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범농장을 개인이 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뜻있는 농업 관련 재단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IV. 맺는 말

가나안농군학교와 복민운동을 주도한 일가 김용기 선생의 삶과 사상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국난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우리의 사표가 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이한기, 2001). 일가선생은 자신을 한 낮 농사꾼으로 자처하고 있지만 실은 훌륭한 교육실천가요 농촌운동가였다고 본다(황중건, 2001).

그동안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이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생명력 있게 지속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정신과 이념, 독특한 교육방법과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 더하여 일가정신과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이 보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유기농업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가나안 교육이 한국 농촌과 농업교육의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뿌리 내려 가기를 기대한다.

일가사상의 구현을 현재 한국 농촌개혁 농민훈련에서 실천해 나가는 방법으로는 국제 유기농업의 핵심원리를 실천하는 교육훈련이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믿는다.

일가재단과 가나안농군학교는 WTO, FTA, DDA 협상 등 농산물시장 개방화와 국제화의 물결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한국농업의 유일한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유기농업 교육의 산실로 거듭나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유기농업 농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학적인 영농교육을 실시하는데 앞장서고, 유기농업 기능대학(일가유기농 기능대학)을 설립하여 전문가 양성에 가나안농군학교가 최선봉이 되어주길 바란다. 유럽에는 이 같은 유기농업 교육프로그램이 4년제 농과대학 뿐만 아니라 농업계고교, 농업전문대학에 두루 개설되어 있어 현장에서 필요한 영농전문가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가재단은 국제규격의 유기농업 핵심기술과 원칙을 준수하는 유기농업의 시범농장(일가 유기농 시범농장)을 운영하여 한국유기농업이 과학화되고 그 제품이 국제수준에 비추어 손색이 없는 유기농제품으로 출하되어 개방화시대에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유기농산물과 경쟁하여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 한국농업이 생존하고 농촌이 파괴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사명감을 발견하시기를 바란다.

한국농업과 농촌이 이 시대의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길은 유기농업의 기술교육에 있다고 보며, 유기농업을 통해서만이 오염되지 않는 청정 농촌환경을 유지 보존해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일용 먹거리를 고품질 안전식품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업 농촌이 될 수 있다(손상목, 2003; Köpke, 1997; Köpke et al, 2000)고 믿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기석 (1998): “국난극복을 위한 일가 김용기 장로의 생애사. 일가 김용기 선생 10주기 세미나 자료
- 김용기 (1965): 참 살길이 여기에 있다. 배영사
- 김용기 (1968): 가나안으로 가는 길, 규장문화사
- 김용기 a (1980): 나의 한 길 60년, 규장문화사
- 김용기 b (1980): 조국이여 안심하라, 규장문화사
- 가나안농군학교 (1979): 김용기사상과 가나안 농군학교, 창조사
- 가나안농군학교(1990): 가나안 복민운동I, I, I가나안 문학사
- 가나안복민연구소 (1990): 가나안 복민운동, 가나안농군학교
- 류수노, 손상목, 박무언 (2002): 환경보전형 농업.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손상목 (1999): 21세기 주거모델 “생태마을”과 유기농업의 국제적 동향. 국제농업개발학회 11(3):264-274
- 손상목 (2000): Codex 유기식품규격 내용과 한국 유기경종과 축산의 적응 실천. 유기농업학회지 8(3):17-34
- 손상목 (2001): 친환경농업을 위한 21세기 농촌형 생태마을의 국제적 동향. 유기농업학회지 9(2):39-54
- 손상목 (2003): 유기농업개론. 이진문화사. Pages 371
- 오세택 (1989): 일가 김용기의 생애와 사상연구,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호 (1999): “김용기의 생애철학”, 한준상 외 근대 한국 성인교육사상, 원미사
- 이만열 (1998): “한국농민운동사의 관점에서 본 일가의 생애” 일가 기념재단, 일가 김용기 선생 10주기 세미나 자료
- 이태근 (2005): 식품위기 “유기농”에 해법있다. 문화일보 포럼 2005.10.12
- 이한기 (2001): 일가선생의 삶과 사상에 있어서의 농촌개발. 제2회 일가사상 세미나 참고자료-1
- 한규무 (1998): “복민운동의 등장과 영향“ 일가 기념재단, 일가 김용기 선생 10 주기 세미나 자료
- 황종건 (2001): 사회교육자로서의 김용기. 제2회 일가사상 세미나 참고자료-1
- Köpke, U. (1997): Ökologischer Landbau. *In*: Heyland, K.U., Hanus, H., Keller, E.R. : Handbuch des Pflanzenbaus. Grundlagen der landwirtschaftlichen Pflanzenproduktion. Stuttgart/ Germany. PP625-628
- Köpke, U., Frieben, B., Geier, U. and Haas, G. (2000): Ökologischer Landbau: Positive Umweltleistungen - Kriterien der Nachhaltigkeit. *In*: Ellendorff, F. and Stützel, H.(eds): Landbauforschung Völkenrode. Wissenschaftliche Mitteilungen der Bundesforschungsanstalt für Landwirtschaft(FAL). Workshop “Nachhaltige Landwirtschaft”. 31 May-2 June 1999. Sonderheft 212, PP312-341
- Kuecke, M. (2005): Personal communication

◆ 연구발표 1 토론

일가사상 구현과 유기농업

최병철(한국생명농업협회장)

일가 선생님의 생애와 유업을 통해서 오늘의 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용기와 슬기를 얻기 위해서 재음미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유기농업이 새로운 농법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농산물의 질을 분석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었다. 농산물이 함축하고 있는 요소들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지, 질병을 가져다주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화학 비료가 발명된 지 약 50년이 경과한 후에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된 농민은 생명(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데 특별한 용기가 있어야 했다. 주위 사람들의 몰이해와 비난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는 정부의 식량정책이 증산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유기농업은 감산된다고 하여 식량증산정책에 역행하므로 반국가적이라는 이유로 탄압하였다. 정부는 식량의 품질이나 건강문제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오히려 유기농업과 환경운동가들을 중앙정보부가 체포하고 고문하면서 이 생명운동을 저지하였다. 본인은 1980년 3월초에 연행되어 4일간 고문을 당하였다.

본인이 1970년 일본 북해도대학에 유학하여 유기농업을 연구하고 1978년부터 연세대에서 유기농업을 강의하였는데 대학의 강좌로는 최초였지만 박기혁 부총장(새문안교회장로)이 적극적으로 추천하였다. 아직도 유기농업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없다.

이러한 정황하에서 일가사상과 유기농업이 함께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는 점을 제언하려고 한다.

1. ‘가나안농군학교’의 뜻을 재음미해 보자

일가 선생님이 제정한 가나안농군학교의 명칭을 고찰해 본다면 ‘가나안’은 에덴의 회복이라는 기독교의 이상향이며 모든 것이 풍부한, 궁핍함이 없는 복지사회를 목표로 삼았다고 본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목표로 하여 개척한 정신의 표현이다.

그 당시는 보릿고개로 빈궁한 시대였기 때문에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구빈운동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농군’은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산업전사로서 전쟁터와 같은 투지를 가지고 질서와 용맹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투쟁정신을 의미한다.

‘학교’는 농민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정신적으로 개혁하고 교육하여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뜻이 있다.

이러한 사회개혁운동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찍부터 있었지만 한국의 가나안농학교의 농촌운동은 그 선두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926년 그리스 : 농촌사회개발운동

1931년 한국 : 가나안농학교운동

1935년 영국 : 농촌사회생활향상운동(협동조합운동)

1946년 이집트 : 농촌종합개발활동

1963년 덴마크 : 국민고등학교(청년정신개발운동 18-25세)

2. 생명존중사상을 강조하였다

유기농업은 영어로 Organic Agriculture 인데 일본이 먼저 ‘유기농업’이라고 번역하여 우리에게 전파되어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Organic은 생물, 생명체라는 뜻도 있다.(옥스퍼드사전 참조)(본인은 1990년대부터 생명농업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일가 선생님 생존시 선생님을 여러 차례 뵈고 농촌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일이 있었지만 농민들이 생명을 존중할 줄 몰라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한다고 안타까워하셨다.

세계 농학자 중에서 생명문제의 중요성을 최초로 강조한 사람은 영국의 Albert Howard 이다. 그는 1890년부터 농무성의 연구관으로 있으면서 40년간 생명체의 귀중함을 퇴비연구에서 알게 되어 1940년에 발간한 그의 저서 『농업성전』 (Agricultural Testament)(최병철 역), 『흙과 건강』 (최병철 역)은 우리시대의 등불이라고 할 만큼 소중한 책이다. 그는 화학비료의 피해를 깨닫고 화학비료 신봉자들과 선전포고를 하였으며 그것 때문에 고독한 길을 한동안 걸어왔지만 나중에는 영국황실이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작위를 수여하였다.

그의 생명농업 이론의 원리는 “생토생민”(生土生民)이며, “균공공생”(菌根共生)인데 화학비료와 농약은 생명체인 균류를 죽이지만. 그는 균류와 곤충들을 보호하는 생명있는 농업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그를 생명농업의 아버지로 추앙하며 세계농업이 그의 학문적 이론을 따르게 되었다.

유기(생명)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 이론적 체계가 구성되어야 하며 자연과학의 연구가 기초를 이루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유기농업학회가 1991년에 창립하였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최초로 설립하였다고 일본의 학자들이 말하였다. 일본의 유기농업학회는 2001년에 창립되었다.

우리나라 농민의 95%는 아직 유기농업을 실천하지 않는 화학비료, 농약, 특히 제초제를 주로 사용하여 농사를 하고 있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무감각하게 뿌리는 농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농민들의 생명존중 사상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암과 만성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화학농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3.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 (1)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
- (2) 저농약농산물인증을 삭제하여야 한다.
- (3) “화염제초”, 땅을 불로 태우는 일을 금지하여야 한다.

결론

유기농업을 확산하려면 생명존중사상을 농민에게 교육하는 일이 시급하다. 대학에 유기농업학과와 유기농업연구소를 설치하여 이론적 체계를 이루는 일이 시급하다.

◆ 연구발표 2

일가의 농업경제사상 일고

정 기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센터장)

1. 서론

2003년 12월 어느 날,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개최된 한 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하여 함께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신 원주가나안농군학교 김범일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가나안농군학교의 교육 이념을 학문적으로 조명하여 2008년도에 한국에서 개최될 제12회 세계농촌사회학대회에서 발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평소 본인은 가나안농군학교의 교육 방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남다른 가치관을 갖고 농촌운동에 투신하며 남들은 다 어렵다는 농사를 지으며 이웃은 물론 나라의 장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강렬하게 결속시키고 농업에 대한 소신을 갖게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을 학문적으로 밝혀 보고 싶었고, 2008년도에 한국에서 개최될 제12회 세계농촌사회학대회(XII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에서 발표하고 토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범일 교장 선생님은 본인의 제안에 적극 동의하시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헤어졌다. 그 후 가나안농군학교의 교육 이념에 대한 본인의 관심은 지속되었지만 이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지 않았다. 아마 이러한 관심이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일가의 농업경제사상을 연구해 달라는 제의에 동의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다.

일가의 농업경제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일가의 사상을 잘 알지 못하는 본인에게는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관심 속에서 평소 지니고 있던 관심과 의문을 풀어 나가는 하나의 시작으로 일가의 농업경제관에 대해서 감히 논의하고자 한다.

일가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본인은 일가의 농업경제관을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첫째는 농업에 대한 가치관과 직업의식이다. 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을 때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가의 농업경제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평가된다. 일가는 농업이야말로 어느 직업보다 보람있는 최선의 직업이라고 평가하고 농업인들은 농업에 대한 긍지를 갖고 농업생산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한편 국가는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아도 될 만큼 도시와 농촌을 균형있게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일가의 농업경영관이다. 일가는 당시에 이미 농장 개발과 농장 설계를 할 만큼 선진된 생각의 소유자였다. 농사를 짓되 수지맞아야 했기에 상업영농을 시도했으며 농장 개발에 따른 자금 배정과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영농을 설계했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과 자원개발, 경영상의 위험분산, 연중 노동력 분산, 계절별 현금 소득원 개발계획 등은 현대의 경영이론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된다.

셋째는 일가의 농업정책관이다. 일가는 사회발전론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일가견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농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업발전이 전제되지 않는 공업화 정책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공업화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농업의 발전을 토대로 하지 않는 공업화는 농업과 농촌의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농업발전, 후공업화를 주장하였다. 이는 오늘날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밝혀 주는 대목이다.

일가의 농업경제 사상은 기존의 이론적 틀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실생활 속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일가가 주장하는 농업과 농업정책 및 농업경제에 관한 논점과 사상은 농업경제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자 이상으로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2000년대 와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2. 농업/농민에 대한 가치관

오늘날 우리는 농업이 위기라고 흔히 말한다. 농업은 생산성이 낮고, 힘들고 소득이 낮아 우수한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 비농업 부문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급감하고 있으며 WTO 체제 하에서 시장개방으로 농업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농가 경영주는 노령화되고, 농가를 이어받을 후계자는 단절된 채 농가가 사라져 가는 상황에서 농촌주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농촌에 남아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누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가 밝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일가는 이와 같은 패배주의적 농업관을 단호히 배격한다.

가. 농업은 결코 생산성이 낮은 산업이 아니다

일가는 농업이 공업에 비해 결코 생산성이 낮은 산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가는 농업이 이윤이 높은 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곡식 한 톨의 재생산량이 어느 산업보다 높다고 주장한다(가나안으로 가는 길, 62). 물론 여기에는 기술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된다. 농업의 생산성이 낮다는 인식은 노력을 적게 하고 기술개발을 게을리 하기 때문이라고 일가는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업이 농업보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가는 공업 부문 못지않게 농업 부문의 생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우선 공업은 유한한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 조달의 한계가 있고, 또 공산품을 생산하고 남은 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많기 때문에 높은 생산비가 수반된다. 그리고 공산품 제조업에서 방출되는 각종 유해물질은 공기와 수질, 토양을 오염시켜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다.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면서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엔트로피를 비용으로 환산하는 회계 방식이 적용되면 제조업은 결코 농업보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반면에 농업은 순환형 농업이 가능하고 태양열을 이용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제조업보다 공해 배출량이 적고 자원 이용면에서도 무한적이다. 산업사회의 반작용에 의한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농업은 자연 환경과 함께 무엇보다 가치 있는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더욱이 농업부문에 BT, IT 기술이 접합되면서 농업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과거에 농업은 식량과 공업원료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농업은 단순히 식량만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 주는 웰빙 식품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과 신물질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제까지 농촌 주변에 버려졌던 풀, 나무 등이 건강식품으로, 그리고 신약과 신물질을 생산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농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다.

농업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다. 과거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관습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학 영농을 한다면, 그리고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사를 짓는다면 농업은 첨단 과학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다. 일가는 일찍이 이와 같은 사실을 간파했다.

농업에 BT 기술이 접합되면서 농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농업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맛과 영양을 조절할 수 있는 농산물이 출현하게 되어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문 방식의 농업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당뇨 등 난치병의 치료에 필요한 줄기세포의 배양, 무균 가축을 통한 인체 장기 생산, 기능성 식품의 생산에 따른 면역 항진제 생산,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식품생산, 고단백질 혹은 특수 비타민을 함유한 식품 생산 등으로 우리 농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새롭게 탄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에 IT 기술이 접합되면서 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농사꾼이 농산물을 생산하면 상인이 농산물을 처리해 주는 방식이었기에 농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을 중간상인들이 차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터넷 판매 방식의 적용이나 회원제 생산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어 우수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식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농민들이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의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지만 그 중요성은 조금도 축소되지 않았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국민의 8할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식량을 생산했지만 2004년도 말에는 전체 인구의 7.1%만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국민의 식량을 생산해 오고 있다. 따라서 농업의 노동생산성은 크게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공업화 중심의 산업화를 지향해온 국가 발전 전략 하에서 농업은 생산성이 낮고, 못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종사하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 농업은 친환경 산업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일가는 공업화에 의한 성장 지향적 가치관이 팽배했던 시절에도 농업의 생산성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며 농업이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해 온 해안을 지니고 있었다.

나. 농업이 천대받는 것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흔히 농업은 힘든 직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가는 농업을 제일 편안한 직업이라고 일갈한다. 힘든 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과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에 대해서 일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과 같이 육체를 활용하여 일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기에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가는 햇빛 아래 일하고 있으니 피부가 건강해지고, 육체를 단련하니 근육이 훈련되고 소화가 잘되며, 종일 식물이 뿜어내는 산소를 마시고 있으니 신진대사가 잘된다고 하면서 힘든 농사일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동의 가치를 힘들다는 부정적인 한 단면만을 보기보다는 이보다 몇 배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정신이다.

일가는 농업이 정신 건강에 매우 유익함을 강조한다. 고용살이를 할 경우,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하지만 자기 농사를 지을 경우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없으니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좋다고 도시로 나가 고용살이를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피곤한 일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 육체적 건강에도 좋지 않게 된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해진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고 주말농장을 선호하는 것이나 도시로 나간 젊은 이들이 유턴(U-turn)하여 농업에 성공하는 일, 그리고 퇴직 후 귀농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도 모두 농업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농업인들이 천대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일가는 농업인 스스로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농민들은 자신이 농업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다 떳떳하고 권한과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농업인들이 스스로 농사짓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함을 의미한다. 독일의 농장을 방문해 보면 농장주인이 모두 자기 명함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농장 사장이지만 이들 중에는 박사도 많고 유통업자나 수출업자들도 많다. 이들은 자기 명함을 자랑스럽게 내 보이며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긍지를 지니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 농가들 중에는 이와 같은 농가들이 있다. 모든 농가들이 일가의 주장과 같이 자신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될 때, 농업인들은 스스로 대우를 받게 된다.

한편 일가는 농업을 천시하는 정치가는 단연 배격할 것도 주문한다. 농업을 천시하는

국회의원은 뽑지 말아야 하고 농업을 천시하는 정치인에 대한 투표를 행사할 때도 당당히 반대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이와 같은 판단보다는 눈앞의 이익에 따라서 투표하기 때문에 스스로 천대 받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농업인들이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스스로 정체성을 지켜야 함을 일깨워 주는 대목이다.

다. 농업은 대통령직 보다 좋은 직업

농사를 하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농사꾼이 이런 말을 한다면 스스로 부자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일가는 말한다. 농사꾼이 스스로 농업을 희망이 없다고 하고, 수지맞게 농사를 지을 줄 모르니 부자가 될 희망도 없다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 농촌에서 의욕을 가지고 농업기술과 경영전략을 제대로 구사해 가면 농사를 지을 경우 농사를 통해 돈을 버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농사를 지어 돈을 벌면 도시로 나가 살고 농촌에서 번 돈을 도시에 투자하고 자녀들을 도시로 이주시키기 때문에 농촌에 남아 있는 사람은 항상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다.

제대로 된 농사꾼이 돈을 벌어 땅에 투자하고 새로운 기술과 노력을 농사일에 쏟는다면 농업도 큰 기업체와 같은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일가는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사꾼이 돈을 벌면 도시로 나가 살기를 원하고 농사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는 너 나 없이 농업은 희망이 없다 하고 농촌에는 노인과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된 현실을 두고 농정이 실패했다고 비판한다.

도시가 농촌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기회가 많으니 도시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의 합리적인 경제행위라고 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농업인들의 행위를 제쳐 두고 농정이 실패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가의 말과 같이 농업인들이 농업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농업으로부터의 잉여를 농업 부문에 투자하고, 교육받은 농촌의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살기 어렵게 되었다면 정부정책의 잘못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 것이다.

일가는 농업은 영원한 직업이라고 말하면서 농업과 같이 좋은 직업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일가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그보다 더 나은 직업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지지만 농업인은 원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직업보다 더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퇴직 후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일가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 환경과 문화를 가꾸는 일꾼이 될 때, 우리 농촌의 미래도 밝아진다고 할 수 있다.

라. 농사꾼은 자연의 이치로부터 배운다

일가는 농사를 지으면 우매한 사람도 현명해진다고 주장한다. 원래 사람의 지혜란 자연으로부터 발달한 것이므로 자연을 벗삼아 일을 하다 보면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되어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현명해진다는 논리다.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자연에 순응해서 사계절의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농사꾼은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학문이라는 것이 자연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므로 자연은 곧 학문의 시원이며 모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의 모체인 자연을 대상으로 연구하며 일하는 농사꾼은 현명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농업은 생명의 원천을 다루는 기술을 습득해야 하므로 농사꾼은 스스로 현명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류 고금을 통해 현명한 사람은 농촌 출신이 많다고 일가는 주장한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일하는 농사꾼은 현명할 수밖에 없다는 일가의 주장은 모든 농사꾼에 해당되는 말은 물론 아닐 것이다.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농사를 짓되, 노력하고 연구하며 이를 실천하는 농사꾼이야말로 진정한 농사꾼으로서 현명한 사람인 것이다.

일가는 공부를 좀 한 사람이면 농사를 짓지 않고 도시로 나가려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지식인일수록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사야말로 국가의 기초산업으로서 산업의 원동력인데 지식인이 농사를 기피하고 무식한 사람들만이 남아서 농사일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와 문명이 후진되었고 급기야는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개탄한다. 흔히 농사는 대우 받지 못하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자신이 최고의 주인인데 누구한테 대우를 받고 안받는 일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마. 농사꾼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일가는 정부가 농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만 하지 말고 우선 자신이 해야 할 일부터 하라고 충고한다. 농사가 수지 안맞는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소출을 더 내거나 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권고한다.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나서 정부가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에 가서 정부를 탓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잘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않는다고 충고한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을 다 하면 반드시 정부가 나서서 이를 도와주어야 하고 또 도와줄 것이므로 농민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할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농촌이 잘 살지 못하는 것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기에 앞서 지식인들이 농업과 농촌을 등한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말로만 농촌과 농업을 사랑한다는 지식인들을 비판한다. 따라서 그는 지식인들이 농촌에 돌아와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촌을 부흥시켜야 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농촌의 번영 없이 나라가 잘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민은 스스로 자신을 천대하지 말아야 하며 국가의 번영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자연을 보호한다는 버젓한 권한과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민들이 이러한 책임의식과 권한을 지닐 수 있을 때 농촌의 삶과 문화에 대

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농업인들은 올바른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3. 농업경영관

일가의 농업경영관은 오늘날의 경제학이나 경영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매우 선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가는 농업을 경영하되 수지맞는 농사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철저한 영농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다각영농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해야 하며 남다른 기술개발과 협동적 생산과 판매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미 현재적인 농업경영이론을 충분히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가. 수지맞는 농사를 짓자

일가는 농사를 지으려고 작정했으면 전문가적인 기술을 익혀 수지맞는 농사를 지을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수지맞지 않아도 마지못해 농사를 지어야 하는宿命론적 농업경영관을 비판한다. 또, 농업은 다른 할 일이 없을 때 막다른 골목에서 짓는다는 생각과 농업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불식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가가 잘 살지 못하는 것은 남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 관습에 따라서 농사를 짓거나 남다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가는 농산물 가격이 낮아서 수지가 안맞을 경우에는 기술을 개발하여 과거보다 더 많이 생산하여 총 소득을 올릴 것을 주장한다. 일가는 실제로 서울 근교에 있는 구기리 황무지 13,000평을 구입하여 생산성이 높은 과수원을 만들었다. 일가는 황무지 땅에 고구마를 심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고, 고구마 저장법을 개발하여 판매한 결과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일가는 품종개량, 토질개량, 재배방법의 개선 등 농업기술을 개량해야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민들이 아무리 기술을 개량해서 소득을 올린다고 해도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으면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정부의 농업정책이 농민의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가는 농민들이 기술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가는 가나안농군학교를 설립하기 이전 봉안이상촌 당시에 이미 주민과 함께 학습조직을 결성해서 농업기술을 스스로 습득하는 전통을 세우고 있다. 즉, 봉안 이상촌 건립 당시 마을 주민과 스터디 미팅(study meeting)을 만들어 월 1회씩 회원 집을 돌아가며 회식 겸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이 연구발표회의에서는 농업기술에 대한 기술발표뿐만 아니라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개선에 관한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구나 학습 결과 좋은 것으로 평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한다는 점이다. 봉안 이상촌에서는 모든 농가가 산양을 한 마리씩 사육하여 양유를

먹도록 하여 영양과 건강을 도모하였고, 닭, 토끼 등을 사육하여 소득을 올리도록 하였다. 농사는 생산성이 낮은 벼농사보다는 과수원 등 소득 높은 작물을 채택하였으며 과목 사이에 고구마를 간작하여 소득을 높이도록 하였다. 특히 고구마 재배법과 저장법을 개발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는 영농법을 개발하여 실천하였다.

나. 영농계획을 철저히 세운다

일가는 수지맞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영농기술 개발 못지않게 치밀한 영농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가는 고향에서 3,000평의 과수원을 개발하는 것으로부터 농사와 인연을 맺게 된다. 일가는 3,000평의 황무지를 90원에 구입하여 3년에 걸쳐 가꾼 후 1,200원에 판매하였다. 일가는 이 황무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400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다. 그 중 90원을 토지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으로 과목 구입, 간작용 종자와 비료 구입, 나머지를 식량 구입비로 사용하면서 농장 개간에 착수한다. 일가는 이 황무지에 고구마를 심어 첫해부터 높은 소득을 올리고 과목을 심어 과수원을 가꾸었다.

여기서 일가는 나름대로의 농장개간법을 정립하여 소개하고 있다.

1) 개간지의 위치 선정

가능한 한 대도시로부터 1백리 이내, 소도시로부터 30리 이내의 지역을 선택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팔수 있는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한다.

2) 개간지의 지형 및 지질

개간지는 서북쪽이 막힌 동남향 지형으로 경사도는 10~15도, 냇물이 있되 홍수의 피해 우려가 없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임목이 잘 자라는 곳은 과수재배에 적합
- 잡풀이 무성히 자라는 곳은 채소재배에 적합
- 줄풀 등이 자라는 곳은 습지이므로 농경지로는 부적합

3) 개간 일정

8월부터 개간에 착수하여 명년 봄에는 과수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농장 규모

일가는 한 농가의 농장 규모로 최저 5,000평을 제시하고 있다. 농장 규모가 그 이하일 경우 농가가 자급자족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적정 농장 규모에 관한 논란이 많지만, 당시 1.7ha 정도의 농장 규모를 최

저 규모로 상정하고 있는 일가는 이미 농가가 자금자족을 넘어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상업영농을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자금사용계획

일가는 농장 개발에 소요되는 총 자금을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배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농경지 구입비: 30%
- 주택, 축사, 우물 등 기간 시설건립비: 10%
- 가축, 종자, 농구, 비료 등 자재 구입비: 30%
- 1년간의 식량, 의복, 의약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10%
- 3년간의 교통비, 운반비, 잡지 구입비: 10%
- 비상금: 10%

6) 농장 건설 순서

- 1차: 길담기(외부 도로로부터 농장 중심지까지)
- 2차: 우물 파기
- 3차: 변소 건설
- 4차: 주택 건축
- 5차: 축사 건축

7) 수지결산 계획

- 제1차년 수입: 현물로 1년분 식량 자급, 현금으로 반년치의 품값 소득
- 제2차년 수입: 1년분 식량자급, 농작물 종자 자급, 수지균형 가능
- 제3차년 수입: 2년 차 수입과 같으며 유통자금에 1할의 이자 부가
- 제4차년 수입: 3차년 수입과 같되 유통자금에 1할 정도의 이자 추가 부가
- 제5차년 수입: 전년도 수입과 같되 유통자금에 1할 정도의 이자 추가 부가
- 제6차년 수입: 전년 수입과 같되 유통자금에 1할의 이자 추가 부가

일가는 철저하게 농장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사용계획을 세워서 농장을 개발하였다. 일가는 경영비용 중에서 중간투입재비 뿐만 아니라 유통비용을 감안하고 있다. 일가의 농장 경영 계획은 현대적 기업경영 기법에 준하는 이론이 접목된 것으로 평가된다. 농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총 자본을 추정하여 확보하고 총 자본을 각 항목별로 배분하여 자본 활용 계획을 세우고, 총 수입을 예상해서 자금 수요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도 한국의 농업경영에서 ha당 경영분석을 기준으로 농업경영을 진단해 오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일가의 농장단위 경영계획은 기업경영(firm management)방식에 준한 것으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획기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한국에서는 새로운 농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기업

들이 일가가 생각하고 실천했던 만큼의 농장 계획과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지는 의문이다. 당시의 농업은 자급자족을 지향하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가는 농산물의 판매를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상업적 농업경영에 착상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농장을 소도시의 시장에서 30리 이내, 대도시 시장에서 100리 이내에 개설할 것을 권장한 것이다. 이는 당시 대중 교통수단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자원을 가꾸고 개발하라

우리 주변에 버려진 모든 것이 자원이다. 일가의 이 말은 오늘날 우리나라 농민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우리나라는 기후와 토질이 알맞아 어디에서나 곡식이 잘되고 과수가 잘 자라기 때문에 어느 곳의 땅이라도 훌륭한 농장이 될 수 있다고 일가는 주장한다. 실제로 일가는 버려진 과수원이나 황무지를 구입하여 생산성 높은 농장으로 개조한 사례가 여럿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오늘 날은 농촌 산야에서 자라고 있는 풀이나 나무, 돌, 흙 모두가 귀중한 자원이다. 이러한 버려진 자원을 가꾸고 상품화하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자원들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나무와 풀로부터 약용물질이나 기능성 물질이 추출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농촌에 버려진 풀이나 나무 어느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다. 최근에는 농촌에 지천으로 널려진 황토, 돌 등도 훌륭한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고 농촌의 환경, 풍경, 인정, 문화 등도 훌륭한 자원으로 개발되고 있음을 볼 때, 일가의 농촌 자원론은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라. 부가가치를 높여라

농업 부문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일과 농업 관련 자원을 개발하여 더욱 높은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로 구분될 수 있다. 농업 부문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기술이 전제되어야 한다. 농산물 저장기술, 농산물 가공기술,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개선 기술, 농장의 생산성 향상 기술 등이 그것이다.

일가는 고구마를 생산한 후 저장했다가 다음 해 봄에 팔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4년여의 연구 끝에 고구마 저장법을 개발한 일가는 고구마를 단경기에 판매함으로써 고구마의 부가가치를 높였다. 당시의 고구마 저장법은 일본인들도 할 수 없었던 선진기술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에는 농산물의 저장 기술이 낮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산물이 수확 후 곧바로 출하되어 농산물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간파한 일가는 고구마 저장법을 개발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고구마는 물론, 사과, 배, 밤 등 생산된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확 후 곧 바

로 출하하지 않고 저온저장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단경기에 판매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농산물이 공산품과 같은 상표를 가져야 하고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일가의 고구마 저장기술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표상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 한국 농업에서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한국 농업의 성장과 존립에 직결된 문제이다. 과거에는 쌀의 kg당 가격을 통하여 쌀의 경쟁력을 따졌다. 이러한 가격 경쟁력에 의할 때, 한국의 쌀농사가 중국이나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저렴한 쌀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일가가 말한 바와 같이 쌀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면 쌀의 경쟁에서 전혀 다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즉, 기능성 쌀이나 고품질 쌀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중국 쌀이나 캘리포니아 쌀과 능히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농산물이 품질 면에서 중국이나 미국의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을 때 그 존립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 다각영농과 위험 분산

일가는 다각영농을 중시하고 있다. 다각영농은 노동력을 연중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한 가지 작물을 재배했다가 낭패했을 때의 경영상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계절별로 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할 수 있으므로 연중 현금 수입이 가능하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경영방식이다. 여기에 축산을 곁들인다면 연중무휴로 일하게 된다. 따라서 연중무휴로 일하는 사람과 일년중 절반 정도 일하는 사람과의 수입은 비교할 바가 못된다고 일가는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작금의 농촌 현실 속에서 연중무휴로 일하는 농민들은 모두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다. 농촌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연중 2~3개월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 기간은 사랑방에서 소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안타깝게도 요즘 농촌 현실은 연중 일하는 사람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의 보조금이나 복지혜택, 자녀들의 지원금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 인구가 노령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일할 수 있는 50~60대의 농민들 중에서도 연중 노동할 수 있는 다각영농을 실천하기 위한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각영농 방식으로 그리고 연중 무휴의 신념으로 일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실천하여 높은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일가의 사상은 오늘날의 농업인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한다.

4. 농업정책관

가. 사회발전과 중농정책

“농자천하지대본”이란 글자 그대로 농업과 농사꾼이 나라의 근본이 된다는 말이다. 일가가 여러 번 강조하는 말이지만 농업이 발전해야 공업이 발전하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농업이 이렇게 중요한데 농업을 천시하고 농사꾼을 홀대하면 나라가 올바르게 서기 어렵게 된다.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지만 왕조하의 관료중심 사회에서는 농사짓는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고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일가는 주장한다. 즉, 농업이 중요하다고 농사꾼을 치켜세우면서 관료 자신들은 일하지 않고 농사꾼을 이용해 먹으려는 속셈에서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을 이용해 온 감이 있다는 것이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농업을 중히 여기지 않았고 농사꾼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불행을 겪게 되었다고 일가는 주장한다.

일가의 주장과 같이 영국 등 유럽의 공업국가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농업발전의 토대 위에서 공업이 발전하면서 선진국이 되었다. 농업으로부터 생산된 원료를 이용한 공업이 발전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규모 면화생산이 면방직 산업 발전을 가져왔고 영국의 양모생산은 유명한 모직산업을 발전시켰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축산업을 통하여 식품산업을 발전시켰다.

일가는 일본의 전후 경제부흥도 농업과 농촌부흥을 바탕으로 이룩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촌 구매층의 소득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공산품이 잘 팔렸고, 그 수입으로 공장을 짓고 다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여 국부를 확장했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공업화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받기 위하여 특화농업을 발전시켰다. 견직산업의 발전과 생사수출을 위해 잠업을 발전시킨 것이 그 좋은 예다. 그뿐만 아니라 일시에 대량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하여 저장함으로써 가격 폭락을 막고 식품산업을 발전시켰으며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했다.

일가는 일본의 공업화는 외국으로부터 외자의 공급없이 국내 자본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을 농업 부문으로부터 축적하여 상업자본을 충당한 것이다. 농지세와 소작료 징수 등은 공업화를 위한 자본 축적의 토대였으며 이는 농업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농업발전은 값싼 식품을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노동자에게 공급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공업화에 필요한 저미가, 저임금 유지가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모두 국가가 농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농업을 발전시킨 결과다.

한편, 일가는 공업의 발전은 농업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즉, 공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농업발전에 필수적인 비료와 농약, 농기계와 농용자재 등을 생산하여 염가로 농업 부문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농업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나. 한국의 공업화정책과 농업정책

일가는 일본의 공업화가 농업 부문의 발전을 토대로 하여 농업 부문의 지원으로 이루

어진 반면, 한국의 공업화는 농업발전의 토대 없이 외국의 자본과 기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업 부문의 발전이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한국과 같이 농업과 공업이 발전하지 않은 가난한 나라가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농업과 공업이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업이 발전했으면서도 농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가는 일본이 공업화 과정에서 택한 농공병진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에 농공병진이라는 정책을 채택하여 추진한 적이 있다. 국가 자원의 대부분을 공업 부문에 쏟아 붓고 보니 도농간 발전 격차가 커져 1970년대에 농공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공병진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1960년대 중반에 주곡달성을 위한 식량증산운동, 1970년대에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소득증대특별사업과 농특산단지 조성 사업 등을 농공병진이라는 정책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업 부문의 정책들이 성공하기도 전에 농촌의 인력과 자본이 도시로 이동하여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농업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기 전에 공업화가 너무 빨리 진전되어 농업부문이 이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한 결과 농업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다. 일가의 주장과 같이 농업이 발전한 토대 위에서 공업화가 이루어졌다면 농업 부문이 겪어야 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농업이 성장하기도 전에 농업 부문의 인적 자원과 자본이 도시의 제조업부문으로 이동하여 농업 부문의 성장 동력을 잠식한 것이다. 우리나라 공업화는 국내 농업의 발전 토대 위에서 농업과 연계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일가의 주장은 오늘날 우리나라 농업 문제의 시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일가의 이러한 비판은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도 건직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잠업을 장려한 바 있고, 식품가공에 필요한 원료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외국의 값싼 원료 농산물에 의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아예 그 토대마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한국에서 제분업이 발전했지만 외국의 밀을 수입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국내의 밀 생산 토대가 사라졌고, 식물성유지 산업이 발전했지만 대두, 유채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게 되어 역시 콩 등 유지작물의 국내 생산기반이 더욱 취약해졌다. 이는 우리나라가 농업발전의 토대 없이 공업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현상중의 일부다. 농업 부문에서 밀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콩 생산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었다면 관련 분야 공업화와 함께 농업도 성장하고 농가소득도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업화는 외국으로부터 값싼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원자재 가공 수출을 장려했다. 한국의 신발, 의류, 텔레비전, 전자제품 모두 이와 같은 길을 걸으며 성장해 왔다. 이는 국내 시장이 취약하여 구매력이 없을 때 취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었다. 식품산업도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값싼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여 가공하여 수출하거나 국내 시장에 판매하였기 때문에 한

국 농업의 토대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업발전이 국내 농업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협상 능력이 있는 이익단체들, 예를 들면 낙농업 등 축산업은 예외였다. 낙농업은 생산자간의 강력한 협력을 통하여 외국 유제품의 수입을 막아내고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한 결과 국내 생산 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 농업의 위기는 WTO 체제 하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 UR 이후 WTO 체제하에서 대부분의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고 외국 농산물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농업의 경쟁력 향상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내 농업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한국 농업의 토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일가의 농업발전론은 오늘날에 와서 더욱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농업의 기계화에 대한 일가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일가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농업도 기계화가 필요하지만 노동력이 풍부했던 1960~70년대 당시의 상황에서 트랙터와 같은 대형 농기계의 사용은 낭비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농업의 기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는 1980년대 초다. 이양기는 1960년대 중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이양기의 보급이 노동력의 부족을 대체하려고 시도되었기 보다는 농기계산업의 육성과 기계화에 의한 농업생산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명분하에서 보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960~70년대의 농기계의 보급은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일가는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다.

일가는 2~3ha 정도의 농사를 짓는 농가가 트랙터와 이양기 콤바인을 사용하게 되면 힘들이지 않고 논갈이와 이앙을 하고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농기계 보유에 합당한 적정규모의 농장을 경영 하지 않을 경우 기계화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농업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빚을 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일가는 농가의 경영규모가 기계를 사용할 만큼 충분히 커지고 영농기술이 발전된 상태 하에서는 기계화가 필요하겠지만 소규모 농가가 대형 농기계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는 것은 경제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가의 농업기계화 비판론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가 1960년대 말부터 농기계 보급을 시도한 것은 농가에서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진했기보다는 농업생산의 효율화와 한국 농업의 근대화라는 비전을 국가 목표로 추진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1970년대의 한국의 농업기계화 정책이 올바른 길을 걸어온 것으로 평가되지만, 한편으로 영세한 농업규모를 벗어나지 못한 한국의 농업조건 하에서 농업기계화 정책이 농가의 부채 증가에 일조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농업기계화 사업이 농가의 경제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5. 한국 농업이 나아갈 길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서는 공업이 발전할 수 없고, 공업의 발전 없이는 상업의 발전이 없고 상업의 발전 없이는 문화의 발전이 없다는 것이 일가의 이론이다. 농업의 발전은 국가 발전의 기본이라는 일가의 생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 사람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농업이 중요하다고 하고 농촌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농촌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 일가의 주장이다.

일가는 농민이 힘을 가질 수 있어야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농촌 사람들이 잘 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세금이 걷히고 그 돈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그래야 국가가 부강해진다. 한편 농촌이 힘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에서 많은 국회의원이 나와서 중농정책으로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50년간 한국의 공업화 과정에서 추진된 농업정책은 일가의 주장과 같은 길을 걸어오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농업과 농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가의 주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기술이 개발되고 현장에 적용되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일가는 농민들이 수지맞는 농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의 농업은 부가가치가 많은 농산물을 누가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는가가 경쟁의 요체가 된다. 품질 높은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여 중국이나 미국 농업의 파고를 넘어야 한국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둘째, 농촌에서 일할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일가는 농촌에 일꾼이 없으므로 학식이 있는 지식인들이 농촌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에서 교육받은 여성들이 농촌으로 시집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도 한다. 일가는 중농정책에 앞서 농촌의 일꾼을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농촌의 일꾼을 양성하는 일은 농업기술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 살고자 하는 의지와 정신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촌에 일꾼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농촌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물질적, 정신적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일가는 농사를 지으면 수지가 맞도록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유용한 영농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하고 정부가 적정선에서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지해 주는 농업정책을 펴야 한다. WTO 체제 하에서 생산을 위한 직접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함으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나 환경직불제 등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등 정부의 지원정책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농민은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넷째로 농민들이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위 농민들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가는 유능한 사람들이 농촌에 내려와 살게 하려면 농사꾼도 출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사꾼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지역의 지도자로서 시장 군수나 도지사도 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제의 확장에 따라서 농민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고장의 주인이 되고 지역의 일을 자치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수 있어야 잘 사는 농촌이 될 수 있다.

다섯째로 농민들이 농사짓는 일이 최고의 직업이라는 의식을 갖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앞서서 강조되어야 할 덕목이다. 농민 스스로 자존심을 갖지 못한다면 농업은 진정 희망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농민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농민들은 과학영농을 통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일가의 충고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한국 농업은 UR 협상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제 희망의 새싹을 키우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기술과 경영 전략을 갖춘 농업경영체들이 나타나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은 물론 수출 농업의 길을 닦고 있는 것이다. 한국 농업의 희망이 돌아나고 있는 것이다. 농민은 이 새싹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 새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가의 농업경제사상은 한층 더 깊이 연구하여 한국 농업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연구발표 2 토론

일가의 농업경제사상 일고

정진석 (흫살리기참여연대 대표)

1. 주제 발표자의 “일가의 농업경제사상”이라는 주제명에 대하여

일가 김용기 선생께서는 일생을 통하여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근로 봉사 희생의 정신을 생활속에 실천하신 분으로 후진들에게 오늘날에도 추앙받고 계신 분이다.

근로·봉사·희생은 인류사회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시공을 초월한 이상이요 꿈이다. 그의 그 정신은 그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류의 역사속에서 이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관을 생활속에서 실천해 보려는 사람은 무수히 많았지만 일가선생처럼 일생을 두고 본인은 물론이지만 그의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생활속에 근로·봉사·희생정신을 실천한 이는 동서고금에 드물다 하겠다. 일가선생은 오늘도 우리가 민족의 큰 스승으로 존경하고 그의 삶의 발자취를 뒤따르려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가 김용기 선생이 한 시대의 사상가였느냐 하는 점에 이르러서는 첫불리 단언을 내릴 수 없다고 본다. 여하간 일가선생이 우리 민족 문화사에 사상가로 평가되고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그분이 지녔던 농업경제에 관한 인식이 무엇이었느냐를 논함에 있어서 “농업경제사상”이라고까지 표현하는 데는 좀 더 깊은 연구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농업경제라고 하는 학문분야에서 일가선생님이 아닌 어떤 누구에게라도 “000의 농업경제사상”이라고 표현된 이가 있는지? 일가선생의 농업경제관에 대한 놀라움이 자칫 일가농업경제사상이라고 표현함이 일가선생의 생애에 본의 아니게 흠집을 내는 것은 아닐까? 따라서 발표자의 주제명칭은 오히려 “일가의 농업경제관”으로 바꾸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 발제자의 의견을 묻고 싶다.

2. “농민”, “농업인”의 개념에 대하여

발표자는 논문에서 농삿군을 표현함에 있어 “농민”이라는 단어와 “농업인”이라는 단어를 혼용하고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일가선생은 그의 강의나 저서를 통해서 “농업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농업인”이라는 용어는 UR 이후 우리 농업이 개방화, 국제화의 파고에 밀리면서 그때 신조어로 등장한 것으로 안다. 우리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 농업은 상대적으로 국가 경제적으로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수익성 또한 후순위로 밀리면서 농업생산의 주체인 농민에게 타 산업 분야(공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산업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소외감, 열등감, 탈락감을 벗어나려는 정책적인 의도로 “산업인”에 대한 대칭적 개념으로 “농업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농업을 순전히 산업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형이하학적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가선생의 농업관은 전혀 다르다고 본다. 일가선생은 농업을 형이하학적 개념에서 인식하지 아니하였고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다시 말하면 농업은 경제이전의 생명산업으로 그는 인식하였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 가치관으로 농사를 지었다.

아마 지금 이시간에 일가선생이 계셨다면 “농업인”이라는 표현에 매우 노여워하셨을 것이다. 앞으로 21세기의 농업은 지난 배고프던 시절의 농업에 대한 인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인식하지 않고서는 농업, 농촌, 농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산업경제적 차원에서는 농업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농업은 산업경제의 차원이 아니다.

일가선생은 농업은 생명산업이요, 천·지·인의 삼위일체적 조화로 이루어지는 예술로 보았다. 농민은 생명경외로 살아온 생명일꾼이라고 했다. 농촌은 온국민이 정성을 다해 가꾸어 가야 할 국민의 정원이라고 가르쳤다.

일가선생의 이상과 같은 농업관을 뿌리로 삼고 한국농업의 나아갈 길을 모색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볼 때 발제자의 결론부분인 “한국농업의 나아갈 길”은 발제자 역시 오늘날 고도화된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정보사회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형이하학적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져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일가사상연구소에서는 지금 정부행정기관에서 행정용어 및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이라는 단어를 폐지하고 본래의 생명일꾼의 깊은 의미와 철학이 담겨 있는 “농민”이라는 단어로 원상회복하도록 주장할 것을 건의하면서 토론을 마친다.

◆ 발표자, 토론자 약력

■ 연구발표 1 ■

발표자 - 손상목(단국대학교 유기농업연구소장)

■ 학 력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학사/ 석사
독일 괴팅겐대학교 농화학연구소, 농학박사
독일 카셀대학교 국제농학부, Post-Doc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환경생물과학대학, Post-doc

■ 경 력

78 - 80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88 - 94 국제농업개발학회 총무이사
95 미국 Virginia Polytech 객원교수
98 - 현재 FAO/WHO Codex유기식품규격 전문심의위원
99 - 현재 농림부 환경농업발전위원회 위원
01 - 04 아시아유기농업연구기구(ARNOA) 회장
02 - 04 한국유기농업학회 부회장
02 - 05 울진 친환경농업엑스포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86 - 현재 단국대 생명자원과학부 교수(유기농업, 친환경농업, 토양비료)
88 - 현재 단국대 유기농업연구소 소장
03 - 현재 세계유기농업학회(ISOFAR) 상임이사/ 토양비옥도분과위원장
04 - 현재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 친환경농업과 겸직연구관

토론자 - 최병철(한국생명농업협회장)

■ 학 력

한신대학교 신학과 졸업
단국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문학사
이스라엘 AFRO-ASIAN 연수원 수료
일본 북해도대학 농학부 대학원 농학석사
중학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경 력

의화농림기술학교 설립 교장
북해도대학, 연세대학 강사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한국유기농업생산, 소비연합회 회장
국제유기농업연맹 한국대표
한국유기농업학회 창설 초대회장, 고문
농림부 유기농업발전기획단 위원
사단법인 한국생명농업협회 회장

■ 연구발표 2 ■

발표자 - 정기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센터장)

■ 학 력

1986 미국 메릴랜드대학교(University of Maryland) 사회학과 졸업
1992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학위 취득
1995 일본 교토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농업경제학 박사)

■ 경 력

1979 ~ 19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부연구위원(농촌사회변동, 마을개발, 새마을운동, 농촌지역종합개발, 지방농정, 농촌여성, 농촌문화 및 관광개발 분야)
1999 ~ 2001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전문위원
1999 ~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농촌사회변동, 농촌개발, 지방농정, 농촌여성, 국제농촌개발협력 등 분야)
2003 ~ 현재 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봉사단사업 자문위원
2003 ~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센터장
2005 ~ 현재 농림부장관 농촌여성정책자문위원
현 세계농촌사회학회 집행위원 겸 2008년 세계농촌사회학대회 조직위원장
한국농촌사회학회 부회장, 아세아농업경제학회 사무총장

토론자 - 정진석(흙살리기참여연대 대표)

■ 학 력

- 1966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과 졸업
- 1971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1990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졸업

■ 경 력

- 1974 새마을지도자 연수원 교관
- 1986 농협대학 교수
- 1990 농협지도자 교육원 원장
- 1990 일가기념사업재단 운영위원
- 1998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 1998 - 현 평택대학교 석학교수
- 1999 - 현 가나안농군학교 객원교수
- 2000 - 현 (사)흙살리기참여연대 대표
- 2000 - 현 한국유기농업협회 부회장
- 2000 - 현 (재)도드람·농사문화재단 이사
- 2003 - 현 한국농협전문학교 운영위원